

축산물, 안전성 확보가 최대 관심사로 부상

◇ 취재 / 김용화 부장
(egg114@poultry.or.kr)

지난달 5일부터 7일
까지 VIV Asia
2003 축산전시회가 태국
방콕의 컨시리킷 전시장
에서 개최되어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전시회는
1993년 처음 개최된 이
후 6차 행사로 가장 큰규
모를 자랑하는 전시회로
자리 매김 하게 되어 유
럽과 미국의 축산업이 동
물보호법과 환경보호 등
으로 인하여 위축이 되고



▲ VIV Asia 2003이 개최된 태국 컨시리킷 행사장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아시아의 축산업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풍부한 인구를 배경으로
축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실감케 하
였다.

태국은 동남아의 중심지여서 국내는 물론
해외의 참관객을 유치하는데 성공하여 명실상부
하게 국제 축산전시회답게 아시아는 물론 유
럽 미국 등 50여 개국의 450업체가 참여하여
2001년도 17,000명보다 17%가 많은 20,000
여명의 참관객을 유치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국내에서도 축산관련 12개 시설업체가 참여

하였으며, 300여명 정도가 전시회 참가를 위
해 태국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태국 VIV Asia 2003 전시회의 특징은
한마디로 증산보다는 안전축산물의 생산과 연
관된 업체들이 대거 참여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거는 아시아인들의 관심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듯 하였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은
종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나라마다 축종에 차
이가 크지만 가금육은 공히 발전의 폭이 매우
큰 실정이었다.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인 것은
생산설비가 가장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사료보

조제, 생균제 등 친환경 제품들이 대거 출품되어 특색을 나타내었다. 세계적인 항생제 생산업체들의 참여는 저조한 반면 예방 백신이나 첨가제 위주의 업체들의 참여가 두드러졌고, 아시아 각국에서 온 바이어들이 새로운 거래 업체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상담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국내에서 참가한 업체들의 평가였다. 바야흐로 아시아 축산업도 생산 위주에서 위생과 안전성을 앞세우는 형태로 점차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미나도 시간대 별로 개최되었는데, 참석자들이 매우 많았다. 인터베트사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종계에 대한 살모넬라 청정화 방안으로 SE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면 추백리나, 가금티푸스가 청정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SE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매우 무리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혹 이들 질병이 있을 경우 부득이 SE백신을 접종할 때에도 계속 살모넬라 테스트를 실시하여 양성계가 나타나면 종계는 전계군을 도태를 하거나, 양성계는 계속해서 도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태국 방문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태국의 양계업을 소개해보면 우선 태국은 불교국가여서 양계업과 양돈업이 그런 대로 발전해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양계업 중 육계업은 이미 외국 자본을 유치하여 계열화 사업이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어 세계 5대 가금육 수출국중 하나이다. 생산량으로 보더라도 2002년도에 유럽 14,509천톤, 미국 7,040천톤, 브라질 6,750천톤, 중국 5,460천톤, 태국 1,320천톤, 일본 1,040천톤(한국 433천톤)으로 집계되고



▲ 아시아 축산업에 대해 설명하는 인터베트코리아 Drees Beekman사장

있는데, 아시아에서 생산되는 가금육은 70.37백만톤으로 세계 총 생산량의 1/3에 해당된다. 태국은 2001년도에 1,360천톤을 생산하여 세계 총량의 1.9%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그러나 태국 역시 생산과잉의 소용돌이를 벗어나지 못해 CP사의 경우 2002년도 수익이 2001년보다 약 27%가 낮아졌으며, 이익은 9%에서 7%대로 내려앉았다. 출하가격도 하락하여 육계는 20%, 계란은 10%가 전년보다 하락한 상태였다. 수산물 가격도 하락하여 마진이 11%에서 8%로 낮아졌으며, 사료는 9%, 새우는 15%의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을 만큼 축산업의 상황이 좋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을 위해 닭고기 수출을 강하게 시도할 경우 우리나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었지만 어쨌든 아시아 축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모습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 보면서 우리도 국제경쟁력을 배가하고, 안전성 확보에 더욱 관심을 높여야 생산기반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취재 협조: 인터베트코리아) **양계**